지리산정원 '맛보기 산책' 해보세요

구례군, 하늘정원~와일드정원 스카이워크 일부 개방…식물카페 등 내년 8월 준공

구례군이 운영하고 있는 지리산정원에 조성중인 주제공원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면서 탐방객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구례군에 따르면 커다란 소나무를 뚫고 별빛숲정원에서 하늘정원을 거쳐 와일드정원까지 연결하는 스카이워크 공사가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2020년 7월 시작돼 현재 캐스케이드와 암석원 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시원한 소나무 숲을 잇는 이 스카이워크는 현재 일부 개방돼 탐방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다. 특히 야간에도 화려한 조명등을 켜 낮과는 다른 환상적인 모습을 선사한다.

스카이워크 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면 동화 속 오즈의 마법사를 주제로 연출한 '와일드정원'을 만날 수 있다.

이 곳에선 자연물인 대나무 미로원 주변에 오즈의 마법사의 배경이 된 에머랄드 도시의 성과 동화 속에서 막 뛰쳐나온 듯한 도로시,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겁쟁이사자가 정원 속 곳곳에 숨겨져 있어 아이들에게 숲속 체험의 흥미를 샘솟게 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리산정원이 완공되면 가족, 연인과 함께 별이 쏟아지는 숲속을 거닐며 맘껏 힐링할 수 있게 된다"면서 "숲에서 치유받는 이벤트 프로그램 추진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생생한 자연 속 쉼터와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별빛숲정원에서 하늘정원을 거쳐 와일드정원까지 연결하는 스카이워크가 모습을 드러냈다. 〈구례군 제공〉

한편 지리산정원 조성공사는 ▲하늘정원 ▲별빛숲정원 ▲와일드정원 ▲프라이빗정원 ▲어울림정원 등 총 5개 주제정원과 입구 게이트, 유리온실 식물카페 등이 조성중으로 내년 8월 준공될 예정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임희조 한국동서발전 신호남건설추진본부장과 공주식 여수시청 교통과장, 문장곤 화양면장, 마을주민 등이 친환경 스마트 시내버스 정류소 준공을 기념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 화양에 '친환경 스마트 버스 정류소'

실시간 버스정보시스템·무선 와이파이 등 설치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에 '친환경 스마트 시내버스 정류소'가 들어섰다.

이 정류소는 ▲실시간 버스정보시스템(BIS) ▲여수시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방범용 CCTV ▲무선 와이파이 ▲휴대폰 충전기 ▲냉난방기 ▲개방형 온열의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전용 대기 공간 ▲자동문 등 다양한 스마트 시설을 갖췄다.

친환경 스마트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사업은 한국동서발전 농어촌지역 상생협력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농어촌지역 교통약자의 친환경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1000만원이 지원됐다.

공주식 여수시 교통과장은 "지역사회 상생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한국동서발전에 감사드린다"며 "친환경 스마트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로 이용객들이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에 노출 없이 쾌적한 공간에서 버스를 기다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외국 근로자 채용 농가 접수

고흥군, 내달 8일까지

고흥군이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가(법인)를 6월8일까지 신청받는다.

고흥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청부터 도입까지는 4~5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마늘·양파 식재 시기인 9~10월에 인력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인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농가는 재배면적에 따라 근로자수를 신청할 수 있지만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배정 절차는 MOU 체결국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 결혼이민자 친척(4촌 이내) 초청, 국내체류 외국인 취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참여농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참여농가 및 외국인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를 진행해 9~10월중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배정받은 농가는 쾌적한 숙소 제공, 근로시간 준수, 인권침해 금지 등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 등 행정적인 절차 이행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은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44명을 농가에 배정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순천드라마촬영장 주변 '황금 물결'

달동네 능선 5000㎡ 금계국 만개

60~70년대 세트장과 환상 조화

순천시의 유명 관광지인 순천드라마촬영장 주변에 만개한 황금빛 금계국 군락〈사진〉이 형성돼 관광객의 시선을 끌고 있다.

'상쾌한 기분'이란 꽃말을 가진 금계국은 여름의 시작을 알린다. 5월부터 개화해 여름 한 철에만 볼 수 있는 야생화다.

시는 순천 드라마촬영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상쾌한 기분과 볼거리 제공을 위해 꽃잎이 황금 닭 벼슬을 닮았다는 금계국 5000㎡ 단지를 조성해 왔다.

달동네 능선을 따라 황금빛 꽃물결 세상이 드넓게 펼쳐져 있고, 멀리 보이는 1960년대 건물들과 어울려 액자 속을 보는듯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60~7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촬영장과 함께 과거를 추억하고 여유롭게 걸으며, 코로나19로 지친 삶에 활력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드라마촬영장은 드라마 '사랑과 야망'을 시작으로 '자이언트', '제빵왕 김탁구', '에덴의 동쪽', '빛과 그림자', '파친코' 등 70여편의 영화·드라마가 촬영된 곳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녹화세트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보성군 '봉화산 선도산림경영단지' 활성화 모색

전문가 토론회 열려

보성군은 최근 봉화산 선도산림경영단지 현장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봉화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 관리방안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전라남도, 보성군, 산림조합중앙회, 보성군산림조합, 산림 전문 경영자 등 산림 행정, 기술, 경영 분야 등 전문가 13명이 함께했다.

보성군 봉화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보성군산림조합에서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2525ha 면적에 1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1년 기준 조림(362ha) 숲 가꾸기(1683ha), 임도 신규 개설 및 구조개량(52.6㎞), 산림소득 단지(두릅·황칠, 100.3ha)가 조성됐다.

관련자들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사업 성과를 확인한 후 시행자인 보성군과 보성군산림조합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관리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보성군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선도산림경영단지의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보성의 미래숲을 가꾸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대한민국 최고' 광양매실 본격 출하

기후가 온난하고 일조량이 풍부해 최적의 매실 재배조건을 갖춘, 우리나라 최대의 매실 주산지인 광양에서 매실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광양시는 지난 25일 광양동부농협 옥곡지점 선별장에서 2022년산 광양매실 첫 출하식을 진행했다. 이날 출하식에는 정상범 광양시농업기술센터소장, 임성재 농협중앙회광양시지부장, 지역농협장 등 산지 유통 관계자들이 참석해 매실 수매와 선별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매실 생산 농가를 격려했다.

올해 농협을 통한 농가 수매일정은 청매실의 경우 6월 17일까지, 남고 매실은 6월 15일~7월 3일이며 총 3300 t 을 수매할 예정이다.

광양매실은 타지역 매실에 비해 구연산 함량이 높고 향이 진하며 색깔이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2015년부터는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뽑은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브랜드 대상에서 7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매실로 신뢰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시는 광양매실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명품매실로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실 과원 정지 전정인력 지원, 매실동력전정가위 지원, 직거래 포장재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